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을 부정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철회하라

1. 최근 광주광역시는 정율성을 기리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해서 올 연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은 1945년 해방 후 조선공산당 황해도당위원회 선전부장이 되었고, 1947년에는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협주단을 창설해 초대 단장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6·25전쟁 발발 후에는 서울까지 쳐내려왔다. 1951년에는 중국 북경예술극원 합창대 부대장이 되었고, 중공군 군가를 직접 작곡하였다.
2.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부에서 정율성에 대한 서훈 심사가 있었으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는 정율성의 생전 활동에 대하여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3.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국군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6.25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인해 국민 200만 명이 사망하고 산업의 50%가 파괴되는 참화를 겪었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북진통일이 좌절되었다. 정율성은 1956년 중국에 귀화한 이래 현재까지 북한과 중국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4.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對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3년 8월 3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원